

##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권희경<sup>†</sup>                      장재홍                      권영민  
서울발달심리상담센터              중앙대학교                      서울발달심리상담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애정관계를 촉진/방해하는 행동들을 평가하는 애정관계 행동척도(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 RRBS)를 개발하고, 이것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하여 8개의 애정관계 행동 차원을 추출하고, 이를 측정하는 52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남성 144명, 여성 251명, 총 395명으로 20세에서 42세사이의 성인이었다. 이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9개의 요인이 나왔으며, 이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61.56%를 설명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alpha$  값을 구한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해 .793의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RRBS의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이성교제의 경험 수준(관계형성 곤란집단, 갈등집단, 및 안정집단)에 따른 RRBS의 점수들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9개 요인들에서 세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애착 유형에 따라 애정관계 행동이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안정형이 다른 불안정 유형들에 비해 보살핌, 호감표현, 신뢰와 같은 애정관계 촉진행동은 더 높았고, 긴장·위축, 친밀감불편, 집착과 같은 애정관계 방해 행동들은 더 낮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애정행동이 다른지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공격성과 높은 보상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RRBS의 하위 요인들과 이성관계 만족도 및 대인관계문제 검사의 하위 요인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RRBS의 하위요인들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 요인들과 .21~.55의 적절한 상관 크기를 보였으며, 대인관계문제 검사의 하위요인들과는 .16~.38의 보다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본 척도의 한계와 강점 및 적용 장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애정관계, 애정관계 행동, 척도개발, 타당도

<sup>†</sup> 교신저자 : 권희경, 서울발달심리상담센터, E-mail : heepsy@korea.ac.kr

장재홍은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권영민은 서울발달심리상담센터에 근무하고 있음.

청소년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성교제 행동은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완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Erikson(1968)에 의하면 ‘친밀감’이란 자신의 정체성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하며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이것은 성인 초기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성교제는 그 동안 다양한 연구결과들에 의해 조망되어 왔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애착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어떻게 성인기의 대인관계들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성인애착과 이성교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를 수행하였다. 일군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애정관계라는 이차관계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랑의 구성요소와 유형, 배우자 선택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수행하였다(홍대식, 1996, 2000; Davis & Latty-Mann, 1987; Hendrick & Hendrick, 1989; Sternberg, 1986). 그리고 상담 및 임상심리학자들은 데이트 폭력, 강박적 집착, 사회적 불안 등 이성교제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행동들에 대한 연구(장희숙, 조현각, 2001; Feeney & Noller, 1990; Hindy, Schwarz & Schwartz, 1994; Wenzel, Graff-Dolezal, Macho & Brendle, 2004)를 수행하였다.

성인기 남녀에 대한 상담에서 이성교제는 주요 호소문제(김진희, 2005)로 등장한지 오래며, 애정관계가 심리적 발달과 심리적 건강 및 개인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발달 이론가들(Collins & Sroufe, 1999; Furman & Wehner, 1994)은 애정관계가 부모관계, 또래관계와 함께 개인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대인관계 맥락이라 보고하고 있다.

이성교제는 열정적 사랑에서처럼 유희적 기능, 장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녀관계에 대한 규범·역할·가치관을 습득하는 사회화 기능, 그리고 이성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헌신과 책임을 공유하는 등 인격 성숙에 기여한다(송명자, 1995; Race, 1999). 특히 이성교제는 성인으로서의 사회화 과정의 일환이며 장래의 결혼생활을 위한 대인관계 학습과정이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Kelly, Huston 및 Cate(1985)의 종단 추적연구에서, 혼전의 남녀관계 갈등과 부정적 경험(부정적 감정의 표현, 문제들의 강도 및 언쟁의 빈도 등)은 이후의 결혼생활의 질을 예언하고 있었다.

또한 애정관계가 심리·신체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Kemper & Bologh, 1981; Reis, 1984)은 애정관계가 잘 진전될 경우 정신·신체적 측면에서 행복감, 안녕감을 경험하지만, 심한 갈등을 경험할 경우 다양한 신경증적 장애들과 피부상의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전혀 이성과 애정관계를 맺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애정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감기 등의 신체적 질병에 걸리며, 최근 연인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수면문제, 두통 등의 신체적 질병, 정서상의 통제력 상실 등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홍대식, 1993, p332 재인용).

그렇지만 ‘바람직한 이성교제 행동은 어떤 행동들인가?’ 혹은 ‘애정관계를 촉진/방해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제는 상담분야에서조차도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이것은 아마도 애정관계 행동의 근간이 되는 ‘이성교제’ 상황이 결혼 관계처럼 안정적인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종결될

수 있는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관계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Loyd & Cate, 1985). 또한 특정 애정관계 행동이 특정 파트너에 대한 호감정도, 이성교제의 단계 등 여러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우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애정관계 행동이 개인의 지속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가변적인 것으로 조망할 경우, 바람직한 애정관계 행동차원을 규정한다는 것은 상담과 정신건강에서 큰 의의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시작된 성인애착과 애정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Ainsworth, 1982; Hazan & Shaver, 1987)은 성인기의 애정관계 행동이라는 것이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비교적 일관적인 행동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기의 애착유형은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애정관계에 영향을 주며(강진경, 최혜경, 2001), 그 사람의 사랑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친다(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Heaven, Silva, Carey & Holen, 2004; Levy & Davis, 1988). 또한 성인 애착의 유형은 범주간의 일관성(이성친구, 동성친구, 부모간의 일관성)은 낮지만, 범주내 일관성(예, 이성친구에 대한 행동의 일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sendorpf & Wilpers, 2000).

이러한 결과들은 한 개인의 애정행동이 비록 파트너에 대한 호감도, 연애의 단계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그 개인의 관계스타일을 나타내는 비교적 영속적인 특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혼전관계의 패턴으로부터 부부관계 만족도나 부부관계의 질을 예측한 종단적 연구들(Markman, 1981; Lips & Morrison, 1986)은 혼전관계에서 그들이 맺었던 관계 방식, 갈

등치리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들이 이후 결혼 생활에도 지속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애정관계를 촉진/방해하는 행동 차원을 측정하는 것은 애정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조력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애정관계 행동을 측정하고 바람직한 행동들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면, 내담자가 만족스런 애정관계를 시작 혹은 유지하는데, 그리고 이성관계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애정관계를 촉진/방해하는 주요한 행동차원을 측정하는 애정관계 행동척도(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진은 이 척도가 상담과 교육장면에서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도록 ① 애정관계를 방해/촉진하는 핵심 행동요소들을 포함하고 ② 적응 및 성격발달과 관련된 행동요소들을 포함하고 ③ 만족스런 애정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절히 변별하는 질문지를 구성하고자 한다.

#### 기존의 애정관계 관련 척도들과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개발 방향

애정관계를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들은 크게 3 가지 방향 - 사랑의 유형 척도, 성인애착 척도, 애정관계 만족도 척도에서 제작되었다.

사랑의 형태를 유형으로 조망하고자 했던 대표적 학자인 Hatfield는 사랑을 흥분적인 열정과와 친밀한 애정인 동반자애로 최초로 구분하였고, Lee(1973)는 사랑을 6 가지 유형(Eros, Ludus, Storge, Manis, Pragma, Agape)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Lee의 6가지 유형을 측정하려는

시도로 Harkoff와 Lasswell(1979)은 50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고, Hendrick과 Hendrick(1986)은 수정된 42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주로 사랑에 관한 태도와 신념들을 측정한다.

한편, 사랑을 여러 차원들의 복합이라고 믿었던 Davis와 Latty-Mann(1987)은 사랑이 인간적 수용, 친밀성, 열정, 걱정해 줌, 만족 및 갈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Sternberg(1986)는 사랑이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및 책임감(commitment)의 3요소가 균형 잡혔을 때 완성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요소들을 측정하는 도구(Sternberg's Triangular Love Scale)를 제작하기도 하였다(1987).

이러한 '사랑' 현상에 대한 연구는 사랑이 친구 등의 다른 친밀한 관계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게 해주었고 애정관계 행동의 기본차원들을 고려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친밀감, 상대방에 대한 수용, 열정, 보살핌은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동기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접근방향은 성인애착과 애정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였다. Hazan과 Shaver(1987)는 아동기 애착을 넘어서 성인의 애정관계(romantic relationship)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후의 성인애착연구들은 애착 유형이 이성교제 행동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애착을 안정형, 불안정-회피형, 불안정-양가형의 3유형으로 보고,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범주형 성인애착척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Collins와 Read(1990)는 18문항의 다문항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반면,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성인애착을 안정형, 몰입형,

두려움-회피형, 무시-회피형의 4가지 유형으로 가정하였고 이를 측정하는 단일문항의 범주형 성인애착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Grillin과 Bartholomew(1994)는 이를 측정하는 30문항의 다문항 성인애착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성인애착과 애정관계 행동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안정형 애착유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보다 건강한 애정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정형 애착유형은 불안정형 애착유형들에 비해 이성친구와 친밀하고 개방적이고 만족스런 관계를 가지며(Hazan & Shaver, 1987), 관계에서의 믿음이 더 높고, 이성관계 경험이 더 많고, 교제의 평균 기간도 더 길다(Feeney & Noller, 1990). 반면 불안정형 애착유형들은 이성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김광은, 이위갑, 2005),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부정적 귀인을 하며(이복동, 2001), 신체적 표현이 더 적고, 파트너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통제적이며, 공감능력과 신뢰감이 떨어진다는(이은정, 2001).

세 번째로 애정관계를 측정하는 접근방향은 이차관계에서의 관계의 질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결혼만족도(marital relationship)를 측정하는 척도를 제작한 이후, 유소영(2000)과 이복동(2001)은 이들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토대로 이성관계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 요인에서 만족도를 측정하며, 이는 친밀한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이경성, 2004)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뿐 자신의 애정 행동을 돌아보게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3가지 방향에서 개발된 각 척도들은 '사랑' 혹은 애정관계의 동기적, 정서적 구성요소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상의 척도들은 애정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동적인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거나 측정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애정관계의 개선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들이 문제이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담 혹은 정신건강 장면에서의 활용도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정관계의 개선을 위해 행동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애정관계에는 동기와 신념들 그리고 행동 차원들이 모두 함께 관여되겠지만, 이 중 행동차원은 애정을 확인하고 유지/발전시키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이현수(2001)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3개의 구성요소 - 신념, 정서, 행동 - 로 이루어지는 바, 이 중 명확히 관찰 가능한 요소는 행동요소이며, 태도는 관찰된 행동의 총화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현수, 2001, p.298-299).

마찬가지로 Maxwell(1985)도 사랑은 하나의 정서인 동시에 하나의 행동으로, 서로 주고받는 애정 행동을 통해 사랑의 정서가 전달되고 느껴지게 된다고 애정관계 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질문지는 행동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하고자 한다.

#### 애정관계를 촉진/방해하는 행동 차원들

본 연구에서는 애정관계를 촉진하고 방해하

는 행동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들을 개관함으로써, 애정관계 행동차원을 추출하고자 한다. 우선 긍정적인 애정행동을 언급한 Branden(1988)의 주장에 따르면, 성공적인 커플들에서 독특하게 추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동들이 있다고 하였다. ① 애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② 신체적으로 가깝고 다정한 경향이 있다. ③ 자기들의 애정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④ 감사와 칭찬을 표현한다. ⑤ 상호적으로 자기개방을 한다. ⑥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돕는다. ⑦ 애정을 물질적으로 표현한다. ⑧ 파트너의 부족한 것들이나 단점들을 잘 참아낸다. ⑨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든다(홍대식, 1993, p.228 재인용).

한편, 권석만(1997)은 애정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기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행복과 기쁨을 주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나 행동을 일으켜 애정 유지가 방해된다고 하였다. ① 과민성: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매우 민감하여서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고 한다. ② 감정동요: 상대방의 기분과 애정반응 여부에 따라 내기분과 감정이 쉽게 변한다. ③ 거부두려움: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하지 않을지 불안해한다. ④ 열등감 확대: 평소에 적게 느껴지던 자신의 결점이 크게 느껴지고 자신감을 잃고 위축감이 커진다. ⑤ 의심: 사랑을 하게 되면 파트너의 애정에 대하여 의심이 많아진다. ⑥ 질투심: 파트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어 한다. ⑦ 외로움과 불완전감: 사랑하는 이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안정되게 된다.

이러한 학자들의 언급과 더불어 애정관계

혹은 낭만적 사랑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애정관계의 진전, 유지, 방해에 관여한다고 정리될 수 있겠다.

애정관계를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행동적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애정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친밀감’을 들 수 있다. 친밀감이란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가까워지려하는 일련의 행동들이다. Hatfield와 Rapson(1985)에 따르면, 이러한 친밀감은 애정관계를 지속하는데서 열정이나 신체적 매력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로, 비록 열정이 많아도 친밀감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쉽게 종결되거나 허무한 관계가 되기 쉽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Lee(1973)와 장휘숙(2002)은 사람들이 연애초기에는 열정적 사랑의 모습을 강하게 띄지만, 연애후기 혹은 결혼관계에 돌입할수록 친밀감이 주요 요소인 동반자적 사랑이나 실용적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Hatfield 등(1985)에 따르면, 동반자적 사랑은 이른바 ‘애정’이라고 일컫는 것과 관련이 더 많으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경험들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애착연구들에 따르면 친밀감은 성인 애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일관적인 개인의 행동패턴이다(Feeney & Noller, 1996). 아동기부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안정감과 행복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추구하게 되며, 따라서 이성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쉽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정태연과 최상진 및 강진경(2000)의 대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회피적 애착이 강할수록 이성관계에서 친밀감의 요소가 현저하게 낮아졌는데, 이것은 회피적 애착유형을 지닌

사람들은 친밀함을 주고받는 행동들을 매우 어려워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보살핌 행동’ 또한 애정관계를 유지하고 만족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하다. 보살핌 행동이란 파트너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힘든 상황일 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혹은 심리적인 지지와 위로들을 주는 행동이다. 몇몇 경험적 연구들(이은정, 2002; Bretherton, 1987; Collins & Feeney, 2000)에 따르면, 파트너를 지지하고 보살피는 행동은 애정관계의 만족도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성인애착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애착유형일수록 이러한 보살핌 행동을 더 많이 한다. 예를 들어, Rholes, Simpson & Orina(1999)는 여성 데이트 상대자가 불안울 일으키는 실험적 상황에서, 안정애착남성은 위안과 위로행동을 한 반면, 회피애착남성은 지지행동을 더 적게 하였으며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호감표현 행동’은 이성교제를 시작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Rubin(1973)은 이성에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성에 대한 접근 행동, 이성을 응시하거나 관심을 표하거나 집중하는 행동이 증가하며, 이러한 행동은 애정의 발전과 관계가 깊다고 보고하였다. 호감표현은 일종의 강화주기 행동으로, 파트너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관계에서 보상받는 느낌을 주게 된다(Hargie, Saunders & Dickson, 1981). 또한 김진희(2005)의 사이버 상담분석 연구에서, 이성 교제의 시작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호감표현이 어렵고 그로 인해 이성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내용이였다. 이러한 호감표현 행동들은 주로 이성교제의 개시 단계에서 상대를 탐색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관심과 호감이 있음을 겉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좋은 부분을

개방함으로써 상대방을 내 쪽으로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신뢰감’은 애정관계를 안정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Bowlby(1969)에 따르면 유아는 부모가 자신의 기대대로 나타나 돌보아줄 때 안정감(security)을 느끼고, 기대를 했지만 부모가 나타나지 않거나 돌보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을 회피하거나 불안해하게 된다. Shaver, Hazan 및 Bradshaw(1988)의 연구에서도 불안정 애착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성인기의 이성 관계에서도 안정된 관계로 믿지 못하고 곧 끝이 나는 관계로 보거나, 파트너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Shaver와 Hazan(1993)에 따르면, 불안-양가형 애착유형은 신뢰가 의심되었던 부정적 사건에만 집착하여 그 사건을 반추적하며 걱정에 빠지게 된다. 즉 ‘그는 나를 사랑하는가?’ 혹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와 같은 회의와 의심이 들면 그것을 확인하거나 다짐 받으려는 행동을 하거나, 미리 파트너를 미리 떠나보내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trust)의 문제는 애착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애정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부정적인 행동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은 ‘공격 행동’이다. 안경애(2003)의 이성교제 중인 여대생의 갈등표출행동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갈등상황에서 위협행동을 가장 많이 하였고(62.2%), 다음으로 폭력행동(18.9%), 무례행동(14.0%), 대화행동(4.9%)의 순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파트너의 행동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혀 변화된 바가 없거나(28.8%), 더욱 악화되는 경우(21.9%)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성교제의 폭력행동에 대한 연구들(이영숙, 1999; 김용미, 1996)에서 미혼 남녀의 연인들은 갈등시에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이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성교제는 즐겁고 유쾌하기도 하지만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속에서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고 비하하는 행동은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애정관계를 방해하는 두 번째 행동으로 강박적 사랑이라 불리는 ‘집착 행동’을 들 수 있다. Tennov(1979)에 따르면, 강박적 사랑은 파트너에 대해 강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파트너에 대한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들이다. 그는 이러한 행동들이 연애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경우 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또한 Peele과 Brodsky(1976)는 강박적 사랑은 일종의 무분별한 몰입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능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Pistole(1994)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유형은 자율성과 연결성 둘 다를 가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착과 연관이 있는 사건에 대해 큰 갈등을 보이지 않지만, 회피형은 거리를 두는 행동을 그리고 집착형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오지각하거나 잘못해석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란 나와 상대방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으면서 서로 연결성을 가지는 행동들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과도한 보상 기대’ 차원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대인매력도에서 ‘보상성의 원리’가 너무 과도하게 적용된 예라 하겠다. 보상은 자신이 갖지 못한 속성을 파트너가 가

지고 있어서 더욱 호감과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기준이 오로지 보상에 의해 지배될 경우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정신역동 치료자인 Benedek(1959)는 연인들이 자신이 바라는 자아 이상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고 느낄 때 애정을 더욱 갈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를 충족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보상이 과도한 경우, 자신이 원하고 있는 욕구나 소망들을 파트너에게 투사하여 파트너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파트너에게 매달려 결국 관계가 실패하게 된다. 전영민과 박영숙(1997)에 따르면, 이성 파트너 선택에서 심리외적 요소들(경제력, 학력 등)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친밀성 요소들을 중시하였던 사람들보다도 관계불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애정관계를 방해하는 행동 차원으로 '긴장·위축 행동'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이성교제 경험이 적거나 이성교제를 개시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성교제 시 '긴장된다', '어색하고 불편하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면 위축된다' 등의 긴장과 위축을 호소하였다. 이성에 대한 이완된 마음과 편안한 정서는 이성 교제를 개시하는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특성의 하나로,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 혹은 거절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긴장·위축 행동은 이성 교제의 개시와 더욱 관계가 깊은 차원이라 하겠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자신감이 없고 자기 수용성이 낮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관계를 맺기 힘들어했다(박남숙, 2005).

상술한 바와 같이, 애정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적, 방해적 행동 요소들로는 친밀감, 보살핌, 신뢰, 호감표현, 집착, 공격성, 높은 보상성 그리고 긴장위축의 8가지 행동들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개의 애정 관계 행동 차원들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고 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애정 행동 차원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지 탐색하고자 한다. Rubin(1983)에 따르면, 연애관계에서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 맥락'에서, 남성은 '분리 맥락'에서 발달하게 된다고 한다. 즉, 연애 관계에서 여성은 '분리'에 의해 더 위협을 느끼고, 남성은 '친밀감'에 의해 더 위협을 느낀다. 이러한 연유로 여성들은 이성교제에서 친밀감과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지만, 남성들은 도구적인 도움이나 해결책 제시에 있다고 하며, 남성은 정서적 표현을 하지 않는 반면 여성은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를 바라고 때론 문제에 대한 정서적 공감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이재림, 옥선화, 이경희, 2002, 재인용).

상술한 연구들에 비추어본다면, 여성은 사랑을 추구하고, 남성보다 더 낭만적이고 헌신적일 것이라 예상되지만, 많은 연구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빨리 사랑에 빠지며,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관계를 종결하려고 하고(Rubin, Peplau & Hill, 1981), 여성들은 관계가 붕괴된 후 더 빨리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한다.

또한 남녀의 사랑의 스타일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사랑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덜 낭만적이고 더 실용주의적임을 보고하고 있다(Dion & Dion, 1973; Hatkoff & Lasswell, 1979; Rubin, Peplau & Hill, 1981). 우리나라 연구(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에서도 이상



적인 파트너의 성격특질과 관련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Big Five에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에서와 같이 여성은 남성보다 애정 관계에서 드러나는 행동들에서도 서로 차이를 드러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을 통해 이 척도의 내적구조를 확인한다. 둘째, 본 척도와 피험자의 실제 이성교제 행동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셋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애정관계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애착유형, 이성관계 만족도, 대인관계문제 검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넷째, 애정관계 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 방 법

### 연구 대상

서울 경인지역의 미혼남녀 총 515명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고 이로부터 수거된 자료는 410명이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5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95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성은 144명, 여성은 251명이었으며, 연령은 20세에서 42세의 범위로 평균연령은 26.27세 표준편차는 4.22였으며, 모두 미혼남녀들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의 학력과 직업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설문 협조는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였다.

### 측정 도구

### 애정관계 행동척도(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 RRBS)

본 척도는 애정관계를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행동들을 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서 구성되었다. 첫 단계는 문항구성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대학생 90명에게 이성교제를 어렵게 하거나 수월하게 하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6개 차원 - 이성에 대한 과도한 긴장, 자신에 대한 열등감, 이성에 대한 경계, 선택의 어려움, 파트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실망, 의존에 대한 불안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6개 차원 -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 갈등처리의 어려움, 집착, 양가적 감정, 친밀하게 되는 것, 파트너에 대한 신뢰, 및 애정을 표현하는 것-등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로부터 문헌조사에서 추출한 8개 차원의 애정관계 행동들이 실제 이성교제 장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

표 1. 응답자의 연령, 학력 및 직업 비율

연령	학력	직업상태	직업
빈도(%)	빈도(%)	빈도(%)	빈도(%)
20-23 117(29.6)	고졸 9(2.3)	정규직 169(42.8)	회사원 118(29.9)
24-27 126(31.9)	대재 141(35.7)	계약직 46(11.6)	교사 40(10.1)
28-31 108(27.3)	대졸 119(30.1)	시간제 39(9.9)	전문직 26(7.0)
32-35 34(8.0)	대학원재 58(14.7)	학생 141(35.7)	기타 70(17.7)
36이상 10(2.5)	대학원졸 62(15.7)		학생 141(35.3)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기술들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8개 행동차원을 선정하였다; 보살핌, 신뢰, 호감표현, 친밀감불편, 공격행동, 긴장·위축, 집착, 높은 보상성. 다음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문항들을 각 차원 당 7개 문항, 총 5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상담전문가 3인이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4개 문항을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총 52개의 문항을 연구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과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보살핌’차원에는 파트너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힘든 상황일 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혹은 심리적인 지지와 위로들을 주는 행동들로 7문항으로 측정된다. ‘신뢰’는 파트너의 애정과 성실성을 믿는 정도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감표현’은 상대방에게 관심과 호감이 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7문항으로 측정된다. ‘긴장·위축’은 이성 파트너에 대해 필요이상의 긴장과 위축감을 느끼는 것으로 7문항으로 측정된다. ‘공격행동’은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7문항이다. ‘친밀감불편’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표현하거나 가까워지는 행동을 불편해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측정된다. ‘집착’은 파트너에 대한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들로, 7문항으로 측정된다. ‘높은 보상성’은 자신이 갖지 못한 속성을 파트너가 가지고 있기를 과도하게 기대하는 행동으로 6문항으로 측정된다.

이 척도는 역채점 문항을 포함하며, Likert 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각 요소의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 이성교제 경험의 평가

연구대상의 이성교제 경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이 이성교제 경험에 대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개 유목, 총 12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지의 유무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유목 문항들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10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은 다양한 경험정도를 묻는 2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 질문지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3 개의 이성교제 경험 수준 집단(관계형성 곤란집단, 갈등집단, 안정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관계형성 곤란집단’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킨 사람들이다. 이러한 요건에는 ① 예나 지금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적다 ② 최근 1-2년 동안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성교제를 시도하지 않았다 ③ 짝사랑만 하고 실제로 이성교제를 한 적은 없다 ④ 이성교제를 원했지만, 최근 1-2년 동안 이성과의 교제가 전혀 없다 ⑤ 이성과 거의 한 두 번 만난 후, 이성 관계가 더 지속되지 않는 편이다 ⑥ 한 명의 이성과 서너 번 만나기는 하지만, 관계가 더 지속되지 않는 편이다 ⑦ 한 명의 이성과 몇 개월 동안 만났으나 애정표현을 하지 못했거나 친해지지 못하고 끝난 상태이다.

‘갈등집단’은 이성교제를 했지만 교제에서 갈등경험이 많았던 집단이다. 이 집단에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이성교제 경험들 중, 다음의 두 요건들(① 한 명의

이성과 서로의 애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교제가 끝이 난 상태이다 ② 한 명의 이성과 애정을 확인하고 연인관계(혹은 약혼관계)로 되었으나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고 끝났다) 중 하나를 충족시켰거나, 현재 이성교제를 하면서 다음의 두 요건들(① 서로 애정을 확인했으나, 갈등이 많으며 더 안정적인 관계로 되지 않는 상태이다. ② 약혼이나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갈등이 많다) 중 하나를 충족시킨 경우이다.

그리고 ‘안정집단’은 현재 한 명의 이성과 교제하면서 갈등이 적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다음의 두 요건(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갈등이 적은 상태로, 가족들 및 친구들에게 이성파트너를 소개한 상태이다. ② 약혼 혹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한다) 중 하나를 충족시킨 경우이다. 3개 집단의 빈도는 결과에 제시하였다.

#### 애착유형의 측정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Griffin과 Bartholomew(1994)가 제작한 대인관계 질문지(Relation Scales Questionnaire: RS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식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아주 그렇다’)이다. 이 척도는 성인애착을 4유형으로 측정하는데, 안정형은 3, 9(역채점), 10, 15, 28(역채점) 문항이, 두려움형은 1, 5, 12, 24 문항이, 몰두형은 6(역채점), 8, 16, 25 문항이, 무시형은 2, 6, 19, 22, 26 문항이 사용된다. Griffin과 Bartholomew(1994)의 제안에 따라, 각 개인의 애착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을 그 사람의 애착유형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2$  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유형의 비율은 안정형 31.1%, 몰두형 25.3%, 두려움형 23.7%, 무시형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성관계 만족도 측정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복동(2001)이 사용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nyder(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한국형으로 수정·표준화한 결혼만족도 검사를 이복동(2001)이 이성교제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4개 요인, 즉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의 요인만을 선택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6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복동(2001)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90, .85, .65, .64였다.

하위척도인 ‘전반적 불만족’은 이성관계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 기대를 하는 정도에 대한 불만족을 측정한다. ‘정서적 의사소통’은 이성파트너의 애정·지지·정서적 친밀감·정서적 이해·공감 정도에 대한 만족을 측정한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이성파트너와의 의견차이 해결방법과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논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내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공유시간 갈등’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을 나타낸다. 각 하위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족 수준이 높은 것이다.

### 대인관계 문제의 측정

일반적인 대인관계 문제의 평가를 위해서 김영환 등(2002)이 개발한 한국형-대인관계 문제검사(K-IIP)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99개 문항으로, 대인관계 문제 원형척도(KIIP-C)와 성격장애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성격장애척도 47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는데, 5개의 하위척도 - 대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 사회적 인정욕구, 사회성부족 -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범위는 .62~.86으로 보고 되었다.

‘대인적 과민성’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충고나 비판을 무시하기 어려워하며, 자기와 타인의 경계가 불투명한 경향성을 측정한다. ‘대인적 비수용성’은 다른 사람들과 맞서려는 성향과 일이나 사랑 중 어느 쪽이든 협조적으로 함께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반영한다. ‘공격성’은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이며, 상대방에게 분노나 짜증이 쉽게 내고 자주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사회적 인정 욕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또는 기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가 강한 것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성 부족’은 사회성과 관련된 문제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긴장하는 특성을 측정한다.

### 분석 방법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최종 선정된 52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이성교제의 경험수준에 따라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하위점수들이 서로 다른지를 검증하였는데, 이때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할 일환으로 애착유형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점수의 차이검증, 애정관계 척도와 이성관계 만족도 및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애정관계 행동척도(RRBS)의 신뢰도 및 요인구조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내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 Varimax 회전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eigen 값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9개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은 전체변량의 61.56%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표 2에서 제시하였다.

요인 1은 전체변량의 10.36%를 설명하고 있으며, 파트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행동과 관련된 7개의 문항들로 ‘보살핌’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의 8.58%를 설명하고 있으며, 파트너를 비난하고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파트너를 공격하는 7개 문항들로 ‘공격행동’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긴장·위축’으로 명명되어진 바, 파트너에게 담당하기 보다는 위축, 긴장되어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7개 문항들로 전체변량의 8.5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4는 자신을 향한 파트너의 애정이나 호감을 믿는 정도를 재는 6개 문항들로 구성된 바, 이를 ‘신뢰’로 칭하였으며, 전체변량의 8.36%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 5는 애정이나

표 2. 애정관계 행동척도 문항들의 요인 구조

문항요인	1.보살 핍	2.공격 행동	3.긴장 위축	4.신뢰	5.호감 표현	6.집착	7.친밀 감불편	8.높은 보상성 <sup>a</sup>	9.높은 보상성 <sup>b</sup>
1. 그 <sup>1)</sup> 가 이쁠때 전화해주거나 곁에 있어...	.719								
9. 그가 어려울 때 뭐든 도울려고 하는 편...	.683								
17. 그가 표정이 나쁠때 무엇이 힘든지 알아...	.661								
25. 그의 좋은 일에 대해 충분히 축하해주는...	.600								
33. 그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편이다.	.562								
41. 그의 어려움을 보고 걱정해주기 어렵다.	-.543								
48.그가 힘든 상황일때 피하고 싶고 부담...	-.483								
2. 화가날 때 그를 몰아세우는 편이다.		.800							
10. 그에게 소리치거나 고향을 질때가 있다.		.782							
18.그가 약속을 어기면 거친말과 행동을...		.722							
26. 내가 하자는 데로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592							
34. 그의 실수에 대하여 너그럽게 넘어가는...		-.586							
42. 그에게 쉽게 감정이 상하고 빠진다.		.462							
49. 그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다.		.435							
3. 그 앞에서 실수할까봐 긴장하는 편이다.			.719						
11.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편...			.679						
19. 그를 만날 때 편하고 당당한 편이다			-.647						
27.그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느껴질때가..			.640						
35.그가 나의 약점을 알아차릴까 두렵다.			.592						
43.긴장없이 그에게 내 마음, 입장을 표현			-.452						
50. 그의 기분에 너무 신경을 써 피곤한적이...			.351						
4. 대체로 그를 믿는 편이다				.797					
12.. 그가 호감,애정을 표해도 믿기지 않음				-.661					
20. 나에 대한 그의 애정에 신뢰가 적은 편..				-.644					
28. 그는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다.				.624					
36. 그를 믿어서 나쁠 것은 없는 것 같다.				.604					
44. 그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421					

1) ‘그’ 또는 ‘그녀’의 인칭이 ‘그’로 줄여짐

표 2. 계속

문항요인	1.보살 핍	2.공격 행동	3.긴장 위축	4.신뢰	5.호감 표현	6.집착	7.친밀 감불편	8.높은 보상성 <sup>a</sup>	9.높은 보상성 <sup>b</sup>
5. 애정어린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736				
13.그의 입장이나 감정을 속으로 이해하는...					-.727				
21.매력을 느껴도 속으로 느끼고 마는 편이다.					-.714				
29. 호감과 관심을 겉으로 잘 드러낸다.					.552				
37.어떻게 애정을 표현할지 모르겠다.					-.522				
45. 그의 좋은 모습이나 장점을 보고 좋다고..					.474				
51. 그와 가까워지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것...					.311				
6. 그를 독점하고 싶다						.726			
14.그의 이성관계에 대하여 자꾸 의심하는...						.595			
22.그의 관심이 다른데로 쏠리면 질투가...						.588			
30.그가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 확인통제...						.578			
38.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아 추궁한 적이 있다.						.433			
46. 나를 사랑하는지 자주 확인하고 싶다.						.428			
52. 같이 있던 따로 있던 늘 그를 생각하는...						.363			
7. 데이트보다 나의 일이나 취미에 더 신경을...							.688		
15. 그에게 나의 생활들을 얘기하지 않는...							.643		
23. 그에게 내 마음을 다 내놓게 되지 않는...							.585		
31.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이 편하다.							.472		
39. 그와 빨리 친해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413		
8. 나는 눈이 높다는 얘기를 듣는다.								.784	
16. 학벌 등의 조건은 그를 더 좋아하지 않는								.558	
24. 그에 대한 나의 애정은 조건적 면이 있다.								.551	
32. 내 파트너라면 꼭 필요한 몇 개 조건을...									.565
40. 그는 나보다 여러 면에서 나은 사람이길..									.439
47. 그가 내 주변에 내세울만한 사람이기를..									.380
eigen value	5.285	4.380	4.363	4.265	3.813	2.912	2.582	2.270	1.763
설명되는 변량의 양	10.36	8.58	8.55	8.36	7.47	5.70	5.06	4.00	3.45
누가적 설명 변량	10.36	18.94	27.52	35.88	43.35	49.05	54.11	58.11	61.56
총 설명변량					61.56 %				

호감, 그리고 파트너의 긍정적 측면을 겉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재는 7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호감표현’이라 명하였고, 이는 전체변량의 7.47%를 설명하였다. 요인 6은 전체변량의 5.70%를 설명하는 것으로, 파트너에 대한 ‘집착’ 행동을 드러내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로 파트너를 독점하려고 하며 파트너의 관심이나 사랑이 다른 곳에 갈까봐 걱정하고 집착하는 행동경향성을 드러낸다. 요인 7은 총 5개의 문항이 포함된 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체하려고 하고, 자신의 독립성에 침해될까 걱정하며, 가까워 지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성으로 ‘친밀감불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의 5.96%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 8과 요인 9는 파트너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주로 외적인 좋은 조건을 파트너에게 많이 기대하는 내용들이었다. 비록 요인분석에서 두 요인이 추출되었지만 내용상 같은 요인으로 판단되어 이 두 요인을 묶어 ‘높은 보상성’요인이라 칭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의 7.45%를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본 척도는 3개의 긍정적 요인들과 5개의 부정적 요인들로 구성되며, 서론에서 가정한 이성교제 행동의 8개 차원을 적절히 포괄하고 있었다.

한편, 최종적으로 완성된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의 내적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은 .793이었으며, 8개의 하위 요인들의 내적일치도 Cronbach  $\alpha$ 값은 보살핌은 .539, 공격행동은 .621, 긴장·위축은 .539, 신뢰는 .840, 호감표현은 .805, 집착은 .725, 친밀감불편은 .755, 그리고 높은 보상성은 .660의 신뢰도를 보였다.

RRBS상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표 3. 성별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척도(RRBS) 요인들의 평균치 차이분석

	성별	M	SD	t
보살핌	남자1)	3.70	.416	1.182
	여자	3.65	.444	
긴장	남자	2.33	.451	-1.229
	여자	2.39	.497	
공격성	남자	2.31	.550	-4.968***
	여자	2.63	.657	
친밀감	남자	2.48	.720	-.976
	여자	2.56	.772	
호감표현	남자	2.60	.708	-.170
	여자	2.62	.734	
집착	남자	2.73	.575	-1.197
	여자	2.81	.658	
보상성	남자	2.90	.580	-6.128***
	여자	3.29	.609	
신뢰	남자	2.85	.600	-.758
	여자	2.80	.681	

\*\*\* p<.001

1) 남자 n=144, 2) 여자 n=251

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애정 관계 행동 점수의 평균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8개 요인들 중 2개 요인, 공격성 요인과 높은 보상성 요인의 점수들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것은 의견대립 상황이나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공격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파트너에게 더욱 높은 기대와 기준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성교제 경험수준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척도 (RRBS) 요인들의 평균치 차이분석

RRB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할 목적으로, 이성교제에서의 경험수준을 상(관계형성 곤란집단), 중(갈등집단), 하(안정집단)로 분류하고(집단분류 준거는 연구방법에 기술함), 이 세 집단에 따라 RRBS의 하위 요인점수들이 서로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8개 요인들은 애정관계 발달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살핌 요인, 신뢰 및 호감표현 요인은 안정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으며 다음으로 갈등집단, 관계형성 곤란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형성 곤란집단은 보살핌, 신뢰, 및 호감표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긴장·위축, 친밀감불편 그리고 높은 보상성 요인들에서는 관계형성 곤란집단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갈등집단, 안정집단 순이었다. 또한 공격행동과 집착 요인의 점수는 갈등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렇듯 이성교제 발달의 수준에 따라 본 척도의 하위척도 점수들에서 차이가 있었다.

RRBS와 애착유형과의 관련성

다음으로는 애착유형에 따라 애정관계 행동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ANOVA와 Scheffe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착유형에 따라 보살핌, 긴장·위축, 친밀감불편, 호감표현, 집착, 신뢰 요인의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이성교제 경험수준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F검증 ( )표준편차

애착 \ 요인(M=평균)	보살핌	공격행동	긴장위축	신뢰	호감표현	집착	친밀감불편	높은 보상성기대
1) 하위 집단 (n=99)	3.01 (.440)	2.44 (.527)	2.72 (.378)	1.65 (.517)	2.06 (.641)	2.75 (.543)	2.94 (.629)	3.31 (.650)
2) 중위 집단 (n=131)	3.66 (.424)	2.83 (.658)	2.46 (.442)	2.33 (.569)	2.42 (.693)	2.89 (.677)	2.47 (.717)	3.20 (.624)
3) 상위 집단 (n=117)	3.84 (.405)	2.47 (.666)	2.03 (.413)	2.67 (.531)	2.88 (.627)	2.69 (.604)	2.18 (.690)	2.90 (.532)
Total (n=347)	3.68 (.441)	2.52 (.631)	2.36 (.480)	2.17 (.646)	2.78 (.621)	2.78 (.621)	2.51 (.745)	3.13 (.625)
F	16.54***	3.22*	59.70***	77.17***	43.21***	3.18*	33.51***	14.16***
Scheffe	3>2>1	2>1 2>3	1>2>3	2>1 3>1	3>2>1	2>3	1>2>3	1>3 2>3

\* p<.05, \*\* p<.01, \*\*\* p<.001

1) 하위=관계형성 곤란집단, 2)중위=이성교제 갈등집단 3) 상위=이성교제 안정집단



표 5. 애착유형에 따른 애정관계 행동요인들의 평균(표준편차) 및 F검증

애정관계행동	애 착 유 형				F	Scheffe
	1. 안정형	2. 두려움형	3. 몰두형	4. 무시형		
보살핌	3.80(.42)	3.57(.39)	3.65(.42)	3.59(.46)	6.456***	1>2,4
긴장·위축	2.21(.50)	2.51(.42)	2.49(.46)	2.32(.46)	8.520***	3,2>1
공격행동	2.45(.65)	2.52(.62)	2.74(.62)	2.43(.63)	1.930	
친밀감불편	2.30(.73)	2.78(.68)	2.52(.72)	2.61(.81)	7.794***	2,4>1
호감표현	2.74(.72)	2.43(.69)	2.55(.69)	2.57(.76)	3.490*	1>2
집착	2.72(.55)	2.77(.61)	3.03(.67)	2.59(.62)	8.261***	3>2,1,4
높은 보상성	3.11(.60)	3.10(.58)	3.22(.65)	3.20(.67)	.942	
신뢰	3.04(.64)	2.64(.65)	2.63(.52)	2.91(.69)	11.003***	1,4>2,3

\*  $p < .05$ , \*\*\*  $p < .001$ .

구체적으로, 보살핌행동, 신뢰, 그리고 호감 표현 차원들에서는 안정형은 두려움형과 공포형에 비해 보살핌행동과 호감표현행동을 더 많이 하며, 더 파트너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긴장·위축차원에서는, 몰두형과 두려움형이 안정형에 비해 파트너에게 긴장을 느끼고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밀감불편 차원에서는, 두려움형과 무시형이 안정형에 비해 파트너와 친밀해지는 것을 더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착차원에서는, 몰두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파트너에게 더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인 애착유형에 따라 애정관계 행동은 유의미하게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안정형이 보살핌, 호감표현, 신뢰와 같은 애정관계 촉진행동은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많이 하지만, 긴장·위축, 친밀감불편, 집착과 같은 애정관계 방해 행동들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관계 행동이 애착유형과 깊은 관련성

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RRBS와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련성

표 6에서는 애정관계 행동척도와 이성교제 만족도 척도간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요인들간의 상관은  $r = .125 \sim -.551$ 의 범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의 예측(애정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이성관계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다)과 일관되게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RRBS의 집착요인과 이성교제 만족도의 공유시간 불만족 요인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살핌, 신뢰, 및 호감표현은 이성관계 만족척도의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그리고 공유시간 불만족과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 $-.551 \sim -.160$ 의 범위)을 지녔으며, 특히 신뢰 요인은 이성관계 불만족 요인들과 높은 부적인 상관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RRBS의 부정적 요인들 중 긴

표 6. 애정관계 행동척도와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간의 상관

이성관계 만족도 요인	애정관계 척도요인								
	보살핌	공격 행동	긴장, 위축	신뢰	호감표현	집착	친밀감 불편	높은 보상성	총점
전반적 불만족	-.300***	.246***	.392***	-.551***	-.298***	.150**	.291***	.257***	.539***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290***	.204***	.481***	-.502***	-.319***	.159**	.318***	.136**	.517***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160***	.277***	.400***	-.337***	-.194***	.252***	.170***	.132**	.411***
공유시간 불만족	-.311***	.138**	.253***	-.395***	-.238***	.094	.217***	.125*	.378***

\*  $p < .05$ , \*\*  $p < .01$ , \*\*\*  $p < .001$

장위축, 공격성 그리고 친밀감불편의 요인들과 이성관계 불만족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드러낸 바, 이는 파트너에게 긴장을 느끼고 위축될수록, 그리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친밀감 불편이 높을수록 이성 관계 불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RRBS와 대인관계 문제검사 (K-IIP)와의 관련성

대인관계 문제와 애정관계 행동척도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

다. 그 결과, RRBS의 공격행동과 K-IIP의 공격성의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전반적으로 RRBS의 요인들과 대인관계문제 검사의 성격장애 하위척도간의 상관은 .160~.382의 비교적 중간정도의 상관크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살핌 요인은 비수용성 및 사회성 요인과 각각 -.343, -.362의 상관을 나타낸 바, 이는 파트너를 보살피고 지지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해 수용적이며 사회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보살핌 요인은 대인관계의 과민성, 공격성, 그리고 인정욕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장·위축요인은 과민성,

표 7. RRBS의 하위 요인들과 K-IIP의 성격장애척도간의 상관

성격장애척도 요인	애정관계 행동 척도 요인								
	보살핌	공격행동	긴장위축	신뢰	호감표현	집착	친밀감 불편	높은 보상성	총점
과민성	-.015	.223***	.334***	-.176***	-.141**	.356***	.034	.118*	.299***
비수용	-.343***	.115*	.256***	-.321***	-.313***	.072	.269***	.124*	.390***
공격성	-.037	.923***	.043	-.090	-.020	.390***	.052	.218***	.394***
인정욕구	-.055	.040	.305***	-.117*	-.211***	.122*	.197***	.160***	.263***
사회성	-.362***	.052	.354***	-.322***	-.382***	.071	.330***	.041	.410***

\*  $p < .05$ , \*\*  $p < .01$ , \*\*\*  $p < .001$

비수용성, 인정욕구, 사회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334, .256, .305, .354)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이성교제 시 긴장하고 위축하는 행동들은 대인관계에서의 민감하고 비수용적이며 인정욕구가 높고, 사회성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격행동 요인은 K-IIP의 공격성 척도와 .923의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RRBS의 신뢰 요인은 K-IIP의 비수용성, 과민성, 사회성, 인정욕구 척도들과 중간정도의 부적 상관(-.322, -.321, -.176, -.117)을 보였다. 이는 파트너의 애정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수용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한 정도도 더 낮은 것임을 드러낸다.

호감표현 요인은 K-IIP의 비수용성과 사회성 및 인정욕구, 과민성 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382, -.313, -.211, -.141)을 나타낸 바, 호감의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더 잘 수용하고, 사회성이 더 높으며,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더 적고, 예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집착 요인은 K-IIP의 과민성 및 공격성 척도와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390, .356)을 보였는데, 이는 파트너에게 집착하고 사랑을 독점하려는 경향성은 대인관계에서의 타인의 행동에 예민하고 공격하는 경향성과 꽤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친밀감불편 요인은 K-IIP의 사회성, 비수용성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330, .269)을 보이고 있다. 이성교제에서 친밀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거리를 두는 행동특성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수용하지 않는 성향, 그리고 편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보상성 요인은 K-IIP의 공

격성 요인과는 낮은 수준의 정적상관(.218)을 보일 뿐 다른 요인들과는 거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보상성 요인이 대인관계 문제와 무관한 독립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하고 만족스런 애정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행동차원들을 평가하는 애정관계 행동척도(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심리측정적 성질과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8개 차원의 행동, 총 52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 구성타당도 및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이 척도는 애정관계 행동 8개 차원 - 보살핌, 공격행동, 긴장·위축, 신뢰, 호감표현, 집착, 친밀감불편, 높은 보상성 - 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 일치도 또한 비교적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높은 보상성 요인은 요인분석에서 요인 8과 요인 9로 나뉘어졌는데, 연구진은 그 문항의 내용이 '파트너에 대한 보상심리의 충족'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고 '높은 보상성' 차원으로 함께 묶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로는 보상성 이외의 것이 혼재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이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문항재구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둘째, 이 척도가 이성교제의 경험수준과 적

절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성교제의 경험 수준(관계형성 곤란집단, 갈등집단, 및 안정집단)에 따라 이 척도의 점수들 평균치에서 차이가 있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 척도의 모든 8개 요인들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애정관계를 잘 맺고 있는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이성애에 대한 보살핌, 신뢰, 호감 표현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른 5개의 애정관계 방해 행동차원의 점수는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 연구에서 안정형 애착유형이 이성관계에서 친밀감이 높고(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Feeney & Noller, 1996), 보살핌행동을 많이 하며(Rholes, Simpson & Orina, 1999), 자율성과 연결성문제에서 갈등을 보이지 않으며(Pistole, 1994), 관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Feeney & Noller, 1990)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에 애정관계를 개시하거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했던 ‘관계형성 곤란집단’은 특징적으로 긴장·위축요인과 높은 보상성 요인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관계의 초기부터 파트너에 대하여 긴장, 위축감을 느끼는 동시에 파트너에게서 자신보다는 나은 좋은 조건을 기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에서 이성교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고 자기-수용도가 낮았다(박남숙, 2005)는 결과와 일관된다.

한편, 애정관계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파트너와 갈등이 잦았던 집단(갈등집단)은 공격성과 집착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특성이 파트너에 집착하거나 갈등해결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관계방해 행동의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며(안경애, 2003), 파트너는 자율성 보존을 위해 관계를 파기하게 하게 된다(Baxter, 1990).

셋째, 이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RRBS의 하위요인들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 요인들과 .21~.55 정도 크기의 적절한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신뢰요인과 긴장·위축요인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정관계에서 파트너의 애정을 불신하고 파트너에 대하여 위축되어 자기표현을 못하는 행동이 이성관계의 불만족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유형의 사람이 애정관계에서 파트너를 불신하여 관계가 곧 끝이 날 것으로 보거나, 부정적 사건에만 집착하여 파트너를 믿지 않는다(Shaver, Hazan, & Bradshaw, 1988; Shaver & Hazan, 1993)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척도의 하위 요인들은 이성관계 만족도와 적절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본 척도가 이성교제의 만족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본 척도와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은 연구진이 기대했던 상관의 크기보다는 다소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연구대상의 이성 파트너에게 이성관계 만족도를 질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본 척도에서 측정된 애정관계 행동이 파트너에게 어떻게 지각되며, 그들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연구는 애정관계 행동 척도의 예언타당도를 확보하는데 더욱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척도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차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대인관계 문제검사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이 척도의 구성요소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척도들 간에는 .16~.38의 중간정도 크기의 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본 척도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며, 높은 보상성, 신뢰, 집착과 같은 애정관계에서 독특한 현상을 측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애착유형에 따라 다양한 애정관계 행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애착유형별로 정리해보자면, 안정형은 다른 불안정형 유형들에 비해 보살핌이 높고, 애정에 대해 더 확신하고, 호감을 더 잘 표현하며, 긴장·위축은 적으며, 친밀감을 덜 불편해 하고, 집착행동이 적었다. 그리고 몰두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파트너에 더 집착하고, 신뢰가 낮고, 긴장·위축이 더 심하였다. 두려움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낮았고, 긴장·위축되어 있으며, 친밀감을 더 불편해하였다. 무시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친밀감불편은 높았지만, 다른 애정 방해 행동들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형이 불안정형들에 비해 보다 더 건강한 애정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들(김광은, 이위갑, 2005; 장휘숙, 2002;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반면에 불안정애착유형들은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부정적 귀인을 하며(이복동, 2001), 지지행동을 덜 한다(이은정, 2002)는 연구들과도 일관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는 주의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

의 공격성 요인은 신체적 공격을 제외한 언어적 공격 반응들에 한정되어있으므로 우선 여성들이 언어적인 것에 한해서는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에서 드러난 언어적 공격성의 우세성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갈등해결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양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문제나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내면으로 그것을 혼자 처리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에 비하여 여성은 문제에 대하여 직면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때 기분이 나아진다(이재림, 옥선화 이경희, 2002, 재인용). 이와 비슷하게 임승락과 권정혜(1998)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시 부인들은 요구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남편은 철수와 회피행동들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되게 갈등이나 좌절에 대하여 더 요구적이고 언어적인 부정적 표현의 양식이 더 많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파트너에게 남성보다 더 높은 기대와 조건들을 기대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여성의 사랑스타일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들은 사랑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덜 낭만적이고 더 실용주의적임을 보고하고 있다(Dion & Dion, 1973; Hatkoff & Lasswell, 1979; Rubin, Peplau & Hill, 1981). 우리나라 연구(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의 성격특질과 관련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Big Five에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기존의 결과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파트너로부터 자신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의 다른 긍정적 애정행동들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사랑의 삼각형 척도(STLS)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결과(정태연, 최상진 그리고 강진경, 2000)와도 일관된 것으로 애정관계를 위하여 추구해야 할 행동들은 남녀에게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랑과 관련된 행동들에 대한 남녀 차이에 대한 논의들은 고정화된 성역할 개념에 남녀 모두를 메이제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공감적이라는 연구 결과(Eisenberg, Feba, & Shea, 1989)가 있다 하여도, 이것은 여성이 애정 관계에서도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애정관계에서 남성들이 더 공감적이기를 많이 원하고 결국 애정관계를 위하여 남성은 자신의 공감성과 정서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드러난 남녀차이 곧 여성이 남성보다 언어적 공격성과 높은 보상성이 더 높다는 점은 남성에게 이것에 대하여 먼저 이해를 구하기보다 여성 개인이 언어적 공격성이 아닌 다른 건강한 방식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남성으로부터 높은 기대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척도의 장점과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척도는 국내외를 통틀어 애정관계 행동차원을 포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본 연구의 결과, 이 척도의 각 요인들은 애정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 - 애착유형, 애정관계 만족도, 현재의 이성교제 수준, 대인관계문제 - 과 관련성을 맺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 척도의 점수는 애정 관계의 경험 수준과

이성관계의 만족수준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는 기능을 지닐 수 있다. 셋째, 본 척도는 대인관계 문제들과는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니지만, 본 척도는 분명히 대인관계의 문제와는 구별되는 특유의 이성 관계 문제점들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애정관계가 실제 본인의 행동적 차원들을 중심으로 평가되므로, 애정 관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행동적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유용성이 크리라 생각된다.

특히 애정관계 행동 질문지는 자신의 애정관계를 위하여 상대방보다는 본인의 행동들 먼저 돌아보게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에, 본 질문지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파트너에 대한 애정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의 힘과 권한(empowerment)을 평등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이자 앞으로의 연구사항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척도는 애정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서 주로 행동 차원 그리고 적응이나 사회화 기능과 관련이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애정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들 중 동기적 요소(예를 들어, 열정), 대인신념과 사랑에 대한 신념 등은 배제되었는데, 추후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또 다른 척도가 제작되거나, 혹은 이 척도와 이들 변인간의 관련성이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둘째,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서울 지역에 정규직 회사원이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아직 적용 대상은 이러한 집단과 비슷한 집단에 한정짓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남자가 144명이고 여자가 251명으로 성비가 균형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은 남녀차이를 연구함에 있어서 제한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계에서 남녀 성비를 동일하게 맞추었지만, 남성의 수거율이 저조했던 것은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관계”속성에 더 적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학력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애정관계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이 없는 가운데서, 연구진이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한 행동 차원들만을 추출한 것이다. 비록 사전조사와 기존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하였지만, 주요한 행동 요소가 빠져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타당도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진경, 최혜경 (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1-24.
- 권석만 (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8(1), 123-139.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김용이(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김진희 (2005). 대학생의 이성 교제에 관한 사이버 상담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37-151.
- 박남숙 (2005).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97-215.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안경애 (2003). 여대생의 이성 교제 중 갈등표출 행동 유형과 영향요인. *간호과학*, 15(1), 50-60.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 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경성 (2004).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성격이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131-150.
- 이복동 (2001). 이성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영숙 (1999). 이성교제 단계에 따른 폭력 발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2), 119-135.
- 이은정 (2002). 애착에 따른 이성 간지지 행동의 차이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림, 옥선화, 이경희 (2002).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37- 48
- 이현수 (2001). *성격과 행동*. 학지사.
- 임승락, 권정혜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98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109-123
- 장희숙 (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93-111.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 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 전영민, 박영숙 (1997). 관계신념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101-116.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 홍대식 (1993). 인간관계의 심리. 양영각
- 홍대식 (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 스타일과 이성상태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81-110.
- 홍대식 (2000).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련된 특징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23-262.
- Ainsworth, M. D. S. (1982). Attachment: Retrospect.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 Asendorpf, J. B., & Wilpers, S. (2000). Attachment security and available support: Closely linked relationship qualiti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1), 115-13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226-244.
- Baxter, L. A. (1990). Dialectical contradictions in relationship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69-88.
- Benedek, T. (1959). Parenthood as a developmental phas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7, 374-389.
- Bowlby,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Basic Books.
- Branden, N. (1988). A vision of romantic love. In R. J. Sternberg and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Yale Univ. Pres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A. Simpson & A. Ro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Y: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87). New Perspectives on attachment relations: Security,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In J. D. Osofky (Ed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2nd ed.). New York: Wiley.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llins, W. A., Sroufe, L. A. (1999). Capac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construction. In W. Furman, B. Brown, & C. Feiring(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K. E., & Latty-Mann, H. (1987). Love styles and relationship quality: A contribution to valid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409-428.



- Dion, K. L., and Dion, K. K. (1973). Correlates of romantic lo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51-56.
- Eisenberg, N., Fabes, R., & Shea, C.(1989).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and prosocial moral reasoning:Empirical investigation." In *Who Cares? Theory, Research, and Educational Implication of The Ethic of Care*. M. M. Brabeck (Ed), NY: Praeger, pp. 127-43.
- Erikson, E. H. (1968). *Identif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eeney, J. A., & Noller, P. (1996). *Adult attachment*. Thousand Oaks, CA:Sage.
- Feene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 (pp.128-154)*. NY: The Guilford Press.
- Fruman, W., & Wehner, E. A. (1994). Romantic views: Toward a theory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Beverly Hills, CA: Sage.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Model of th self and Other: Fundamental of the self and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430-445.
- Hargie, O., Saunders, C., & Dickson, D. (1981). *Social skill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ambridge: Brookline Books.
- Hatfield, E., & Rapson, R. L. (1985). Gender differences in love and intimacy: The fantasy vs. the reality. In H. Gochros and W. Ricketts(Eds.), *Social work and love*. New York: Hayworth Press
- Hatkoff, T. S., & Lasswell, T. E. (1979). Male-femal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nceptualizing love. In M. Cook & G. Wilson (Eds), *Love and attractio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xford: Pergamon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aven, P. C. L., Silva, T. D., Carey, C., & Holen, J. (2004). Loving Styles: Relationships with Personality and Attachment Styl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 103-113.
- Hendrick, C., & Hendrick, S.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Hendrick, C., & Hendirick, S. S. (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84-794.
- Hendrick, S. S. (1988). A generic measur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93-98.
- Hindy, C. G., Schwartz, J. C., & Schwartz, J. C. (1994). Anxious romantic attachment in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 NY: The Guilford Press.
- Holmes, J. G. (2000). Social relationships: the

- nature and function of relational schema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447-495.
- Kelly, C., Huston, T. L., & Cate, R. M. (1985). Premarital relationship correlates of the erosion of 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167-78.
- Kemper, T. D., & Bolo, R. W. (1981). What do you get when you fall in love? Some health status effects.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3, 72-88.
- Lavy, M. B., & Davis, K. D.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s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Lee, J. A. (1973). *The colors of love: An exploration of the ways of loving*. Don Mills, Ontario: New Press.
- 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755-773.
- Markman, H. J. (1981). The prediction of marital distress: a five year follow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760-2.
- Maxwell, G. M. (1985). Behavior of lovers: measuring the closeness of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215-238.
- Peele, D., & Brodsky, A. (1976). *Love and addiction*.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Pistole, M. C. (1994). Adult attachment styles: Some thoughts on closeness-distance struggles. *Family Process*, 33, 14-159.
- Race, F. P. (1999). 청소년심리학.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역. 시그마프레스. 2001.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Allyn & Bacon.
- Reis, H. T. (1984). Social interaction and well-being. In S. W. Duck(ed.) *Personal relationships 5: Repairing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and New York: Academic Press.
- Rholes, W. S., Simpson, J. A., & Orina, N. M. (1999). Attachment and anger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940-957.
- Rubin, L. B. (1983). *Intimate strangers: Men and woman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 Rubin, Z. (1973). *Liking and loving: An invita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Rubin, Z., Peplau, L. A., and Hill, C. T. (1981). Loving and leaving: Sex differences in romantic attachment. *Sex Roles*, 7, 821-835.
- Shaver, P., Haza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 Vol. 4*, John WH, Perlman D (Eds). *Jessica Kingsley*: London; 29-70.
- Shaver, P.,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The intergration of three behavioral system. In R. J. Sternberg & M. I.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pp.68-99).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Sternberg, R. J. (1987). Liking versus loving: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ories. *Psychological*

- Bulletin*, 102, 331-345.
- Tennov, L. (1979). *Love and limerence*. Chelsea: Scarborough House Publishers.
- Tzeng, O. C. S. (1993). *Measurement of love and intimate relations: Theories, scales, and applications for lov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olution*. Westport: Praeger.
- Wenzel, A., Graff-Dolezal, J., Macho, M., & Brendle, J. R.(2004).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in socially anxious and nonanxious individuals in the context of romantic relationship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505-519.

K C I

##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Study of the 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RRBS)

**Hee-Kyung Kwon**

**The Seoul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for Development**

**Jae-Hong Jang**

**Chung-Ang University**

**Young-Min Kwon**

**The Seoul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for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RRBS) and to validate the scale. The RRBS was administered to 395 single men(144) and women(251), ranged 20s from 40s. Factor analysis of the RRBS resulted in the nine factors, implying supporting, aggression, tension, trust, liking expression, clinging, intimacy rejection, and high rewardiness need(a) .high rewardiness need(b). Good coefficients of reliability for dimensions were found. To identify validity the RRBS, it was identified whether the scores of RRBS differ in romantic relationship experience level(relationship difficult group/ conflict group, stable group). Using one-way ANOVA, three groups demonstrated significant difference on scores of the RRBS's subscales. And it is identified whether the styles of attachment differ in the scores of the RRBS. As results, the stable attachment style was higher then the unstable attachment styles in supporting, trust, liking expression scores and was lower then the unstable attachment styles in aggression, tension, clinging, intimacy rejection, and high rewardiness need scores. Also, the correlations of RRBS and Dating Relation Satisfying Scale and K-IIP were appropriate level and significant. Also, it was identified that the women's scores of aggression and high rewardiness need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men'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RRBS was effective and useful instrument to assess 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s. It is discussed about advantages and limits of the RRBS

*key words* : Romantic Relationship, 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 Development, Validity.

1차 원고접수: 2005. 11. 18

심사통과접수: 2005. 11. 24

최종원고접수: 2005. 12. 12